

종합

3·1절 행사 다채

마라톤대회, 건강걷기대회, 도로 싸이클 대회 등 일본 제국주의 총칼에 맞서 온몸으로 항거했던 한민족 정신을 계승하는 3·1절 91주년 기념행사가 광주·전남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마라톤·사이클·걷기대회 등 광주·전남 곳곳서 기념 행사

13·1절 기념식을 거행한다. 애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행사도 펼쳐진다. 광주월드컵 경기장~남평교 일대에서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광주일보 주최 '제 45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열린다.

교육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광주 1억6천550만원

전남 2억5천400만원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치러질 광주시, 전남도 교육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 제한액은 광주가 평균 1억6천550여만 원, 전남이 2억5천4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호 살리기 정부가 나서 달라”

윤증현 장관 초청 간담회 광주 R&D 특구 지정 등 지역 상공인들 요구 봇물



26일 광주를 찾은 윤증현(맨 왼쪽) 기획재정부장관이 서구 치평동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초청 광주·전남 상공인 간담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축된 지역경제를 반영하듯 지역 상공인들의 건의가 봇물을 이뤘다.

이날 광주시 서구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을 비롯한 광주·전남 상공인 30여명은 “나후한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줄 것”을 윤 장관에 건의했다.

박홍석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클린자동차 부품산업 조성, 광주 R&D특구 지정, 광산업 육성은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나기수 첨단산단경영자 협회회장은 “지역민들은 금호그룹의 위크아웃이 상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금호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영석 디앤에스 대표는 “전남지역 해안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해상풍력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풍력에너지 연구센터, 풍력·설

비 부품 전용단지 조성 등 풍력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업계에서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세광조선 유재석 대표는 “정부의 조선사 지원책이 대형 조선사 위주로 진행돼 지역 45개 중·소형 회사가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수출입 은행의 선박제작금융자금 지원 한도 상향, 수출보험 공사의 현금결제 보증 완화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에서 “광

주시가 R&D특구지정을 신청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검토하겠으며,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가 금호그룹의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사의 동의서가 필수적이다”며 “노·사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에서 “광

공시지가 광주 0.88% 전남 1.10% 상승

광주시 동구 총장로 2가 15-1 m당 940만원 가장 비싸

지나해 10년만에 하락했던 광주·전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소폭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광주는 0.88%, 전남 1.10%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천954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광주의 경우 5개 자치구 표준지 8천75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및 돌구장 건설계획, 광역도로사업 착공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부

동산업계 분석이다. 지난해에는 광주가 1.02% 하락했다.

전남지역도 22개 시·군 표준지 6만2천798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결과 1.10% 상승해 지난해(-0.36%)와 달리 소폭 올랐다.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광주시 동구 총장로 2가 15-1 스포츠의류점으로 m당 940만원을 기록했고 전남에서는 여수시 교동 275번지 귀금속 전문점이 m당 430만 원을 기록, 가장 비쌌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홍일 前 의원 건강 다소 회복 목표 방문



최근 다소 건강을 회복한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장남 김홍일 전 국회의원이 26일 2녀어 만에 목포를 방문, 1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단법인 유영장학회 이사장인 김 전 의원은 이날 신안비치호텔에서 제10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김승형(전남대)씨 등 9명의 대학생에게 각 200만원, 김지효(전남예고)양 등 7명의 고등학생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부인 윤혜라 부이사장과 김정현씨 등 역대 보좌관들과 함께 참석한 김 전 의원은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부이사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목포는 고 김대중 전 대

령년부터 제가 3선 의원을 지낼 때까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따뜻한 곳”이라며 “유영장학생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 어렵고 때로는 시련이 닥쳐도 끈기있게 이겨내면서 나라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수여식 후 참석자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그는 또 목포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27일 지인들과 조찬을 갖고 상경할 예정이다.

한편, 유영장학회는 김홍일 이사장의 5·18 보상금 1억원을 토대로 설립했으며 7억40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반으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시설

김연아 ‘금빛 연기’ 정말 자랑스럽다

‘피겨퀸’ 김연아 선수가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서는 쾌거를 달성했다. 김연아는 26일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신 채음으로 20점을 훌쩍 넘는 총점 228.56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우리는 세계인들조차 눈을 뜨게 한 김연아의 무결점 연기를 보며 환율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3·1절을 눈 앞에 앞두고 일본 선수들을 완벽하게 제압해,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이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김연아의 우승은 한국 피겨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김연아의 뒤를 이을 인적 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복마전’ 교육비리 이번엔 반드시 척결해야

서울에서 교육장과 학교장, 장학사의 인사 비리에 가담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교비를 횡령해 사법처리된 인사가 무려 33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광주도 대부분의 학교가 부정입학에 연루됐으며 지난해 수도권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행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입학원서를 조작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광주도 대부분의 학교가 부정입학에 연루됐으며 지난해 수도권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행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입학원서를 조작한 의혹도 받고 있다.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도전정신으로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그랜드슬램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한 김연아의 모습은 국민에게 큰 용기와 미래에 대한 더욱 가슴 벅찬 희망을 갖게 했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이루지 못할 꿈이 없음을 새삼 일깨워준 것도 소중한 선물 아닐 수 없다.

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등 65개 법안 처리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전부개정안’ 등 65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여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

지난 1949년 제정된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잦은 부분개정만 있었을

뿐 그 근간에 손을 대지 못했다. 여기에 지방세법을 총칙과, 세목, 감면 등의 조항이 혼재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지방세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MBC 사장 김재철씨

MBC 26일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사장에 김재철(57) 청주MBC 사장을 선임했다. 김 사장은 다음달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포스코 기술전문 조뇌하씨



〈조뇌하 전무〉 〈김준식 소장〉

광양제철 소장 김준식씨

포스코는 2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4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9대 소장(전무)에 김준식(56) 마케팅부문 상무를 선임했다. 전임 조뇌하 소장은 포스코 기술총괄(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서비스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소장은 “오는 2018년 매출액 100조원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광양제철소가 주역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은 다음달 2일 오전 광양제철소 노베이션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

빛의 만평

- 김중두



10분의 1이라도 좀 닦아봐라

北 “불법입국 남한 주민 4명 조사중”

정부 “사실 관계 확인중”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불법 입국한 남한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최근 해당 기관에서 우리 공화국에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했다”며 “단속된 남조선 주민들은 현재 해당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단속해 조사중’이라는 남한 주민들의 신원과 입북 경위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전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이후 정부가 가진 방법을 동원해 평양과 금강산, 개성과 기타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체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

서 “하지만 아직 북측 발표와 관련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에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주민은 26일 오전 현재 개성공단 983명, 금강산 46명, 평양 8명(대북 지원단체 월드비전 대표단), 해주 모래채취 인원 17명 등 총 1천54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의 남한 주민 체류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어, 북한이 ‘단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힌 남한 주민이 이 ‘1천 54명’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

현대아산 관계자도 “오늘 오전 금강산과 개성 현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측 인원의 변동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북측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측 접경지역에서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details.